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March 2019



관련 기사 : 9 페이지

contents

- 리더십 칼럼**
- 4 시대와 요나
- 발행인단신**
- 6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 터키는 지금**
- 9 터키와 유럽연합: 이 결혼은 안전합니까?
 - 12 터키의 3월 전국 지방선거
- 언니의 골방**
- 14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 미국 무슬림**
- 16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국의 하스파닉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 중동지역의 오늘**
- 19 이집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면서 새 교회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 20 터키, 만비즈와 아들리브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다
- 교회개척 운동**
- 24 선교 지향적인 목사는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킵니다
- 새생명 이야기**
- 32 난민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 파트너 칼럼**
- 34 터키의 삼위일체적(현지인-선교사-교회) 교회개척운동
- 킹덤아웃리치**
- 36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 참가자 인터뷰 리베키선교사

2019년 3월 29일 통권 103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릇, 이은옥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2018년 9월 28일 베를린에서 만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 (9p)

실클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운영이사 김진영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대표, SEED 선교회)
김민수목사 (레이블유언암교회)
권현천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방주선교교회)
김태형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한요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온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스罔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장경일목사 (원파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리교회)
홍원기선교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실클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운영이사진:

이 사장 김승욱 목사 (힐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민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진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하오름교회 (송주한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매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호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기도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재건남가주교회 (이병상목사, Hawaiian Garden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하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 목사, Colorado Springs, CO)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4월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총 13팀과 약 150명의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소서!

- 4월 아웃리치를 위해 현재 바쁘게 준비하는 SWM 본부 간사들과 리더십의 여러 사역들(교회 방문/집회/준비기도회/킹덤스쿨 등)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부으심을 하락하소서! (연락: 김진영 선교사 949-705-8256)

3/22(금)-24(주일): 킹덤 스쿨(강사: 김진영, 김성간, 이세웅) @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3/27(수): 김진영 선교사 수요예배 설교 @ 뉴욕센트럴교회

3/29(금): 선교부흥회(강사: 김진영 선교사) @ 뉴욕하은교회

3/31(주일): 김진영 선교사 주일 설교 @ 뉴저지만나교회

3/31(주일) 김성간 목사 주일 설교 및 선교 보고 @ 소망커뮤니티교회

4/3(수): 김진영 선교사 수요예배 설교 @ 뉴욕장로교회

4/5(금)-7(주일): 킹덤 스쿨(강사: 김진영, 김성간) @ 뉴잉글랜드온혜장로교회

4/10(수): 김진영 선교사 수요예배 설교 @ 뉴저지동산교회

4/12(금)-14(주일): 킹덤 스쿨(한국어: 김진영; 영어: 김성간) @ 시카고 레이브 언약교회

4/16(화)-20(토): 북가주 CPM특새(고난주간) @뉴비전, 새누리, 상향중앙, 임마누엘선교교회

(강사: 김진영 선교사, 조요한 선교사, 박조디 선교사, 김요엘 선교사)

- 올해 아웃리치 사역들로 인하여 현지(터키, 이집트, 시리아, 쿠르디스탄)에서 사역하는 교회개척자들과 현지 교회 리더들에게 큰 힘과 격려 및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풍성히 임하게 하소서!

- 4월 아웃리치사역과 그 후, SWM 리더십의 모든 사역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4/22(월) - 5/1(수): 킹덤아웃리치(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 4월 30일:1일 연중회 @ 이스탄불)

5/1(수) - 5/5(주일): 페르시아어권CP 순회사역(김성간/홍원기/이원철/탁요셉 @볼루, 뒤즈제, 존굴닥, 김진영/이세웅/김종훈 @흑해권)

5/6(월) - 5/9(목): 터키어권 및 아랍어권 교회개척자 수양회(강사: 홍원기, 방상용) @ 이스탄불

5/9(목) - 11(토): 터키 동부 반 교회 방문 사역 (방상용/방휘경, 홍원기/김진영, 이세웅/김성간/이원철)

5/12(주일) - 16일(목): 아르메니아(백승환 선교사) 방문 사역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5/17(금) - 19(주일): 이스탄불 교회 방문 & 사역자 만남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5/20(월) - 23(목): 이집트 방문 사역 일정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희어진 추수밭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시대와 요나



글: 이재진 선교사
(SWM Korea 대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빠른 기술 변화의 속도는 미래를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에게 예측과 검증, 현상들의 이론화, 학문화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변화에 대한 연구 방법을 바꿔야만 했고, 예전과 예측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에 맡겨 버렸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온라인, 모바일에 도입되면서 전세계 사람들의 수 많은 삶의 모습들과 부의 축적 개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소유 경제(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의 형태가 공유 경제(재화, 공간, 건물, 인력..등)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구독 경제(신청한 서비스에 대하여 배달, 주천, 한시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의 모습으로 까지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기술의 변화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담아내는 도구들로 능숙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를 돋는 하늘의 자원들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이것들을 활용 할 방법들을 더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병력과 전쟁 물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마 제국이 뒤아 놓은 길들이 사용되어 흘러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게 되었던 것처럼, 중세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독점해 왔던 성경을 다양으로 인쇄하여 성도들의 손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위대한 불을 점화한 것처럼, 근대 원거리 항해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세상 제국들은 점령군의 군대를 보내 식민지화 하였지만 복음을 맡았던 전도자들이 그 배에 자신의 인생을 실어 땅끝까지 선교의 열정으로 나아갔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세기 한 세기의 변화의 속도는 과거 인류 역사 수천년동안 이룬 변화의 수십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축적된 지식의 양과 방대한 데이터, 경험,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과 교류, 쏟아지는 학문적 성과와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극심한 범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 더 세분화되고 극렬해진 민족 간의 분쟁, 종교 간의 테러, 국가 간의 증오와 부패를 보고 경험하며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큰 성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셨고 그를 니느웨로 파송하셨습니다. 요나의 파송은 현대판 선교사의 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25-26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하거나 ‘회복’되서는 안될 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번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후 큰 풍랑과 바다에 던져짐,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삼일, 그리고 토하여 내침과 두번째 부르심, 이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나는 이후 죽을 때까지 니느웨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 하였다고 합니다. 현대판 선교사의 삶을 산 구약의 인물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선교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후 니느웨 곧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복음과 선교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이방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악독한지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현대판 요나들’이 복음과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통일 후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실 마지막 시대의 ‘요나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자고 있는 ‘요나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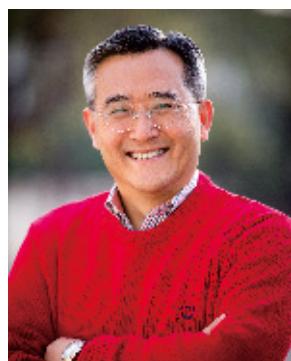
열방 끝에서 죽어 천국 복판에서 만나자고 인사했던 북한 지하고회 교인의 인사가 기억납니다. 터키와 이슬람권에 보내심을 받은 SWM의 사역과 함께 하는 모든 동역자 분들과 협력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히브리어-*emunah*, 헬라어 *pistis*-*pistis*)이란 단어는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다’라는 뜻인데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에 의한 선물로서 그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눕니다.

첫째: 믿음이란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구원받을 자를 향한 그의 거룩한 설득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둘째: 믿음이란 관계안에서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롭게 되다’ ‘구원받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7)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여기서 ‘안다’ 헬라어 ‘γινώσκω-ginosko’ 단어의 뜻은 ‘관계와 사귐’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안다’의 뜻은 남녀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대하여, 링컨 대통령의 노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알아가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험할수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해방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장군이나 링컨 대통령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나와는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그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9)**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믿지만 구원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교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알아가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험할수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새 직장을 갖기 위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대로 병이 낫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도,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시지만 그 분의 뜻에 합당한가, 그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 촉점을 맞추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함을 다 내려놓고 그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믿음이란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혓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0-22)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 2:26)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믿음은 행
함입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에서 아웃리치사역이 진행됩니다.
13개팀으로 구성된 약 150명의 성도들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터키와 유럽연합 이 결혼은 안전합니까?

글: 부락 베크딜

(게이트스톤 연구소, 12/27/2018)

번역: 한국번역팀



-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화 지수에 의하면, 터키는 말리, 니카라과, 케냐를 포함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보다 더 나쁜 '자유롭지 않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유럽연합 (이하 EU) 회원국이 될 수 없듯이,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회원국은 있을 수 없다.
- '장기적으로 볼 때 터키와 EU는 새로운 길을 가고 가입 협상을 끝내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에 터키의 회원 가입은 당분간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하네스 칸, 유럽연합 확대 위원;
디 벨트 지와의 인터뷰

2017년 9월 독일 양겔라 메르켈 총리는 터키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메르켈 총리와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2018년 9월 28일 베를린에서 만났다.

1987년 터키가 처음으로 EU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을 했을 때, 그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유럽의 부유한 클럽 같은 이 조직의 이름도 유럽 경제 공동체이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경미한 수술을 받았고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3번째 임기에 재선되었다. 마카오와 홍콩은 각각 포르투갈과 영국의 영토였다. 베를린 장벽이 있었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시위는 2년 남았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 헤드라인에 있었다. 첫 번째 인티파다(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막 시작했다. 오늘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였다.

2003년 3월 레젭 타입 에르도안이 터키 총리로 선출 된 지 불과 몇 달 후 그는 터키가 "EU 가족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터키와 EU 간의 공식 가입 협상이 시작되었다.

첫 데이트 후 3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연합은 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부적절한 두 성인 사이에 결혼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한, 지난 10년 동안 양측은 가식적인 외교 게임을 펼쳤다: 먼저 반지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지루한 오페라 부파(18세기 이탈리아 희가극)는 더 이상 지속 가





능하지 않다.

유럽의 민주주의 문화와 양립하기에는 터키의 민주주의는 험량부족이다. 인권옹호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구금 된 터키 시민들, 폐쇄된 언론 매체 및 압수당한 기업들에 대한 무서운 결과 외에도, 혼란스러운 숙청은 쿠르드족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과 뒤섞여 이웃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터키의 외교적 군사 개입을 촉발시켰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화 지수로 보면, 터키는 말리, 니카라과, 케냐를 포함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국가보다 더 나쁜 성과를 내고 있는 “자유롭지 않은”국가들에 속한다. EU는 확실히 “자유롭지 않은” 클럽이 아니다.

최근에 터키와 EU 간의 법적 분쟁은 터키와 유럽의 민주주의 문화에서 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불균형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에 터키와 EU는 테러 혐의로 감옥에 갇힌 저명한 쿠르드 정치인의 권리에 대하여 충돌했다.

2018년 11월 판결에서, 터키가 서명국인 유럽 인권 재판소(ECHR)는 터키가 셀라하틴 드 미르타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의 재판 이전 구금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보다 오래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ECHR 판결을 무시한 터키 법원은 드 미르타쉬의 석방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터키 법원의 결정은 터키 헌법 제 9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동일한 문제에 관한 조항의 차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권의 국내 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 협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터키 외무 장관 메브luet 자부소울루는 ECHR 판결은 법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으로 기술했으며 터키의 법원에 의해 판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롭지 않은”나라는 EU의 회원국이 될 수 없듯이,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회원국은 있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쇼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징후가 브뤼셀에서 발생했다. 2017년 8월에 유럽 의회는 터키의 EU 회원 가입절차를 정식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것은 터키의 EU 가입절차를 이미 효과적으로 동결시켰다. 2017년 9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터키의 회원국 회담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더 최근, 11월에, EU의 미래 확대를 감독하는 관리는 장기적으로, EU가 터키 회원국에 대한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정직한”것이라고 말했다. EU 확대 위원장인 요하네스 칸은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터키와 EU가 새로운 길을 가고 가입 회담을 끝내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운 장래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는 칸의 정직한 대화였다.





사실, 칸의 발언보다 한 달 앞서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정직의 이유가 아니라 사전 선거 하세 때문이었다. 분명히 그는 선거 과정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2019년 3월 31일 터키 지방 선거를 앞두고 EU에 터키가 ‘이슬람 포퓰리’에 기반을 두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EU의 피곤한 민족주의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은 2018년 10월 연설에서 EU 가입을 위한 터키의 오랜 고착 상태의 입찰을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의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가 휴가(협상)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에르도안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터키의 “전략적 가치”를 유럽에 상기시키려는 듯한 엄포를 놓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이교도 유럽’으로 인해 굴욕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유럽 터키 이민자들에게 거친 남자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저자는 EU와 터키 국민 투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인들에게 궁극적인 터키 회원국을 추천하는 지와 터키인들에게 가입을 거부할지를 묻는 동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국민 투표에서도 :아니오”투표가 승리하면 터키의 회원 가입 과정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한다. “예”표는 쇼가 지금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중은 오페라 부파에 만족한다.

터키가 전략적 이유로 터키 EU가입을 지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정직하지 못하다. “플러그를 빼는 것”은 정직하지만 아마도 실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도 그 역사적인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론 조사 수치는 회원 가입에 대한 터키 여론의 쇠퇴를 시사한다. 반면에 EU 회원국에서는 터키 회원국에 대한 동조가 이전보다 극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터키 허입에 대한 지원은 프랑스 8%, 독일 5%, 영국 8%, 덴마크 5%, 스웨덴 7%, 핀란드 5%이다. EU 평균이 50% 기준을 초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클럽 회원들과 신청자가 절대로 효과 없을 결혼에 대한 회원 가입을 결정하게 하자.

터키의 주요 언론인 중 한 명인 부락 베크딜은 최근 터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게이트스톤 (Gatestone) 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고 29년 만에 가장 유명한 신문사에서 해고 당했다. 그는 중동 포럼의 선임연구원이다.

Source: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3404/turkey-eu-marriage>





터키의 3월 전국 지방선거

글: 아나톨루 에이전시,
양카라 (2/10/2019)
번역: 한국번역팀



터키는 3월 31일 지방 선거를 치릅니다. 11개의 질문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터키는 매일 선거 운동과 정치인들의 연설로 3월 31일 전국에서 열릴 지방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선거 규정에 따라 터키의 지방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입니다.

1. 몇 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총 12개의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합니다. 주요 정당은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민족주의행동당(MHP), 좋은당(IYI), 인민민주당(HDP) 등입니다. 독립 터키당(BTP), 한나라당(BBP), 민주당(DP), 민주좌익당(DSP), 민주당(DSP), 사데(Felicity)당, 공동체민주주의당(TDP), 애국당(Vatan) 등도 참여합니다.

2. 후보자 명단은 언제 확정됩니까?

공식 선거일정에 따르면 각 정당은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명단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들을 평가한 후, 선거 협의회는 3월 3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3.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는 어떤가요?

법률상의 예외는 제외하고, 모든 유권자들은 그들이 등록되어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것입니다. 터키 유권자들은 전자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소의 이름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4. 대도시에서는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도시 지자체라고 불리는 터키의 대도시의 유권자들은 도시의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며, 지방 자치 단체들, 시의회 의원들, 이장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뽑을 것입니다. 터키에는 30개의 대도시 자치체가 있습니다. 수도 앙카라와 터키 시민의 5분 1 기끼이가 살고 있는 이스탄불, 또한 안다나, 안탈리아, 아이딘 벌케시르, 부르사, 데니즐리, 디야르바크르, 에르주룸, 에스크셰히르, 가지안텝, 하타이, 이즈미르, 카흐라만마라수, 카이세리, 코자엘리, 코냑, 말라티아, 마니사, 마르딘, 메르신, 무울라, 오르두, 사카리아, 삼순, 산르우르파, 테키르다아, 트라브존, 반입니다.

5. 작은 도시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도시에 사는 유권자들은 지방의회 의원, 시장, 시의회 의원, 이장들,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6. 마을에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마을에 사는 유권자들은 지방의회 의원, 이장,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7. 투표용지는 무슨 색입니까?

흰색 투표지는 광역 시장 선출에 사용될 것입니다. 주황색 투표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란색 투표지는 시군수 시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8.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몇 개 넣을까요?

각 개인 유권자가 투표하는 색상의 투표 용지는 모두 하나의 봉투에 담게 됩니다.

9.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죠?

투표는 터키 81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아드야만, 아르트빈, 빈겔, 비틀리스, 디야르바크르, 엘라즈으, 에르주룸, 가지안텝, 기레순, 규무쉬하네, 하카리, 카르스, 말리타야, 카흐라만마라수, 마르딘, 무쉬, 오르두, 리제, 시이르크, 시바스, 트라브존, 툰젤리, 산르우르파, 반, 바이부르트, 바트만, 쉬르낙, 아르다한, 유크드르와 킬리스 나머지 주에서는 투표소가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05:00-14:00GMT).

10. 개표 시작은 언제죠?

개표는 오후 4시 또는 5시 이후(13:00 또는 14:00GMT)부터 위와 같이 도시에 따라 투표가 종료된 직후에 시작됩니다.

11. 어떤 표가 먼저 집계됩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장, 구청장, 시의회, 이장 투표로 개표 절차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예배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온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랑하는 분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묻게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 자신을 살아내려 하는 육신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헬레니즘의 영(헬라 문화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삶과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사람이 있게 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닌가에 촛점을 맞추게 되고, 많은 영역에

서 세상의 기준으로 선한가 악한가를 결정하면서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달려 갑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시간과 육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하는 모든 영역이 기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쇼핑몰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자고 쉬어야 하는 밤이 마치 낮과 동일하게 멈추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정보를 소유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인터넷의 정보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일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순복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마음들을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수많은 유익한 정보와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많은 좋은 것들





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를 분발하여 찾지 않으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저절로 노출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바짜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여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는 정말 사망임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절실히 인식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힘써서 예배하기 위해 타협하고자 하고 주를 찾는데 수동적인 나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만왕의 왕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존전으로 나이가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그 땅이 또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영원의 삶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천상의 예배에 함께 하라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온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주로 인

정할 때,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전쟁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날마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일 때 우리의 전쟁이 주께 속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승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긴 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 만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 29:2)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 99:5)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시 138:2)



미국 무슬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국의 히스페닉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글: 데이빗 허친슨(갓리포트 2/13/2019)

번역: 김지영(새누리교회)



(사진) 제이미 "무자하드" 플레처
정치적으로 반-라티노의 정서가 팽배한 요즘,
이에 불만을 품고 휴스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히스페닉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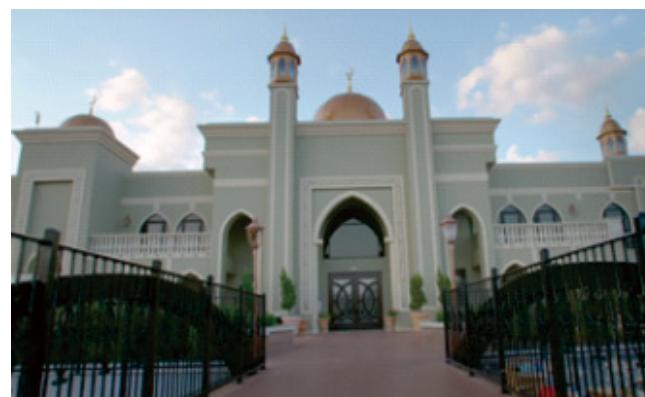
이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무슬림들에게서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유튜브의 한 동영상은 설명하고 있다.

라이스 대학 사회학과의 크레이그 콘사이딘 교수는 오늘날 미국에는 자신의 가톨릭 전통을 버리고 무함마드의 율법을 쓰는 25만 명의 라티노 개종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콘사이딘 교수는 천주교 신자로, 무슬림들을 섭기고 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혐오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의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 나라의 많은 라티노들은 말한다. ‘기독교가 주지 못하는 무언기를 이슬람이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중세에 스페인을 정복했으나 피레네 산맥에서 찰스 마르텔의 가공할만한 군대를 만나 북진이 좌절되었다. 거의 8세기가 지나 페르디난드와 이사벨이 ‘재정복’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여 1492년에 비로소 스페인에서 무슬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스페인어 사용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미국 천주교 신자의 34%를 차지하는 라티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제이미 “무자히드” 플레쳐는 8살에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 콜럼비아와 베네주엘라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원했지만 그는 간단에 들어 갔고 마약에도 손을 댔다. 그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원하면서, 꾸란에 관심이 갔다. 지금 플레쳐는 휴스턴의 스페니쉬 센터 내에 ‘America’s first Islam’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라티노 무슬림 회중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슬람 선전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라마단 기간동안 그들의 온라인 포교를 통해 이슬람을 접한 사람들은 천4백만 명에 이른다.



같은 음식, 돼지 고기는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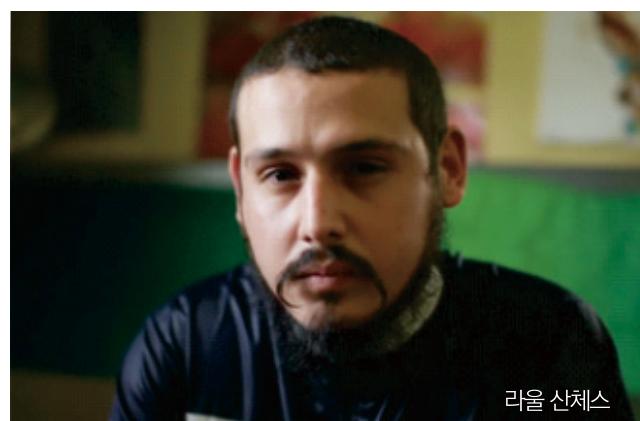
“내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꾸란을 주었어요. 꾸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슬림이 되고 술을 끊자 어머니는 내가 세뇌되었다고 생각하셨지요. 여자도 끊었어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 동영상에서 플레쳐는 말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지 4개월 후, 그의 리더들은 플레쳐가 미국의 스페인어 채널인 텔레문도와 유니비전에 출연하여 이슬람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무너져내린 직후였다.

“그들은 내게 왜 이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지를 설명해주기 원했어요. 어떤 콜럼비아 사람들이 마약을 판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마약 딜러가 아닌 것처럼 어떤 무슬림

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다고해서, 내가 무슬림인 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플레쳐의 가족들도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어?” 라며 그의 개종에 대해 분노했다.



라울 산체스

휴스턴 북부에 사는 멕시코 이민자 라울 산체스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었기에 다행 DACA의 적용을 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그의 가족은 그와 의절하였다.

미국에서 그는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었기에 시간당 5불을 받고 설거지를 하는 등 뒷골목의 일 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좌취에 반감을 품고 있을 즈음 이슬람을 통해 다른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점점 이슬람이 얼마나 심오한 종교인지, 미디어가 이슬람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티노로서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이중의 어려움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내 옷을 모두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내가 테러 조직에 가담했고 사람들을 죽이는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결국 산체스의 어머니는 그가 속한 이슬람 공동체를 방문해 본

후,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와 동료 신자들이 흄리스들을 먹이는 등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이들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그녀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라이스 대학의 콘사이던 교수는 미국의 무슬림들에게 라티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 선동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여전히 9/11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무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슬림이 아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무슬림들이 IS나 알 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성인 성례 담당자인 데이빗 로페즈는 예전보다 천주교 옹호를 위한 변증활동을 많이 줄였다.

“무슬림 공동체들이 라티노들을 전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살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그것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로페즈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수민족, 그 중에서도 라티노 인구가 2050년이 되면 백인 인구를 넘어서게 된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콘사이던은 미국 인종 문제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다. “휴스턴의 문제는 미국에 다가올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미국이 점점 유색인종화되고 있는 이 때, 진정한 기독교가 라티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무슬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빗 허친슨은 [로스엔젤레스의 등대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다.



이집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면서 새 교회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글: 바나바 기금 웹사이트
(2/4/2019)
번역: 한국번역팀



이집트 북부 15개의 새로운 "4세대" 도시들 중 하나인 뉴 알리메인에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 1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엘시시 대통령이 이 땅을 할당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시에는 회교 사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뉴 알리메인은 300만 명을 수용하고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사이의 관문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집트의 신 행정수도에 있는 성당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1월 6일 크리스마스 예배(콥티정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할 때)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에게 속해 있으며,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엘시시 정부도 2018년 508건의 신청이 승인된 교회 건물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2017년부터 인기를 신청한 3000여 개 교회도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현 정부 하에서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오고 있지만, 정부가 인정한 교회의 개설은 종종 시골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의 구실로 이용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00여 명의 무슬림들이 알 쿠메리아의 한 교회 건물을 공격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직후 폐쇄를 강요했습니다.

출처: <https://barnabasfund.org/en/news/building-work-begins-on-new-church-as-egyptian-president-lives-up-to-promises>





터키, 만비즈와 이들리브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다



앙카라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와의 회담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북부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로이터/카릴 아사워

(설명: 2018년 12월 29일 터키군 차량이 시리아 만비즈 시골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글: 세미 이디즈

(알-모니터 터키 펠스, 2/7/2019)

번역: 한국번역팀

터키는 시리아의 두 전선에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이들리브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을 마주하고 있고 다른 한 편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의 영토와 만비즈에서 미군의 철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두 과제는 터키의 외교적 에너지를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소모시킬 것이며 앙카라가 시리아 북부 계획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시리아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이란과 러시아의 계획을 담은 워싱턴의 결의로, 앙카라는 궁극적으로 꿈쩍도 하지 않을 두 강국 사이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와 워싱턴과의 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카라는 지금까지 두 가지 시안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심에 대한 양측의 긍정적인 발표들도 그 상황을 많이 바꾸지 못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워싱턴과의 좌절감을 반영해 이는 만비즈에 있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민병대(YPG)에 대한 터키의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번 주에 미국에 다시 한번 통보했다.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 테러범들이 몇 주 안에 만비즈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대기 기간을 끝내고 우리의 계획을 행동에 옮길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에르도안은 2월 5일 그의 의회 그룹에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재 위협이 터키를 그만두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르도안은 몇 달 동안 이러한 위협들을 공포해왔지만 변화는 거의 없었다. 터키는 YPG와 그 정치적 날 개인 민주당 연합당(NPT)이 태러 집단이며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그들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뒤집지 않으려면 그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앙카라는 느끼고 있다. 아니둘루 통신은 지난 주 12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여전히 중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것은 2월 5일부터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YPG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발전기와 이동성 다목적 차량들을 탑재한 400대의 트럭들이 만비즈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만비즈에 정통한 뉴스 소식통은 터키와 미국 관리가 시리아를 포함하여 다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기 위하여 워싱턴에서 만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터키 외무부 세단 오넬 차관과 그의 미국인 상대인 데이빗 헤일이 이끄는 회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나중에 발표된 공동 성명서는 양측이 시리아, 테러, 국방 문제, 사법 및 영사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거의 진전이 없다. 시리아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YPG 위협으로 인한 터키의 안보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터키 언론은 앙카라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국제 무력에 의해 이 지역이 치안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앙카라는 터키 군과 시리아의 자유 시리아 대원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 지역의 정착촌에 터키에 막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 시작한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정착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앙카라가 이 지역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에 대한 모든 쿠르드족의 열망을 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시리아 북부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시작된 터키의 유프라테스 방파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의 결과가 앙카라에 대한 몇 가지 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리아 상황을 활용하여 터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목표들은 터키가 유프라테스 동쪽과 만비즈에 대한 완전한 군사 통제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터키 군사 작전 반대와 터키군의 공격으로부터 YPG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워싱턴에 널리 퍼진 반테러 성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 그 입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터키는 또한 시리아의 러시아 - 시리아 작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리브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모스크바는 2018년 9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들리브를 위한 양해 각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계속했다. 각서에 따라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터키는 모스크바와 다마스쿠스가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하야트 타흐리 알샤 (HTS) 그룹을 무력화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와 다마스쿠스는 이 지방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터키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이들리브의 협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몇 주간 주장해 왔다. 모스크바는 또한 HTS가 이들리브 지방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러시아와 시리아의 공습 재개를 촉구했다.

앙카라는 이들리브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증가하자, 터키 - 러시아 각서를 훼손하기 위해 HTS를 지원하는 서방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메블롯 자부소울루 외무 장관은 지난 주 휴리에트 편집자와의 취재에서 2018년 12월 에르도안이 처음 제기한 이 비난을 반복 했다. 자부소울루 장관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HTS를 격멸하고 심지어 이들리브 각서를 망치기 위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돈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요청 받은 서방 외교관은 "논리를 무시한"것으로 묘사했다. "이는 이들리브의 통제 불능의 나라으로 치닫는 상황을 직면한 앙카라의 절망감을 반영한다"고 익명을 요구하며 알-모니터와 인터뷰한 그 외교관은 말했다.

휴리에트의 평론가 세다트 에르긴은 자부소울루가 어떤 칼럼니스트의 음모 이론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비난한 것이라면 그것을 의심하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그것을 보는 방법에 상관없이,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 들여지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외무 장관이 확실한 정보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에르긴 평론가는 말한다. 자부소울루 외무장관의 주장은 군사 분석기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은퇴한 터키의 나이 바부로울루 준장은 미국이 벌써 터키의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에 연계된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YPG와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부소울루는 "알 카에다 와 이슬람 국가를 국익에 사용하는 미국이 터키와 다른 국가들에 대해 HTS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 과장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논점의 장점이나 단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들리브에서의 앙카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앙카라와 모스크바는 시리아 북부의 한 안전지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휴리에트 편집자와의 회의에서 자부소울루는 러시아가 그런 영역에 대한 생각을 원칙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최근 몇 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군이 철수하면 시리아 정부군이 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부소울루는 만약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부를 장악한다면, 정권과 YPG가 함께 터키에 대항 할 수 있기 때문에 앙카라 안보 문제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앙카라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한 것인데,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의 정권과 YPG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시리아 쿠르드인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해 싫어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결론은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시리아에서 앙카라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앙카라는 YPG가 쿠르드족을 대표하지 않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쿠르드족과도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리아 쿠르드인의 주의를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는 "쿠르드족 공포증"이 모든 시리아 쿠르드족으로 확장되었고, 둘째는 쿠르드 족의 대다수가 이 단계에서 YPG에게 협력적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터키 친화적인 쿠르드족"은 없다는 것이다.



세미 이디즈는 알-모니터 지 터키 펠스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30년 동안 주요 터키 신문에 외교와 외교 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자다. 그의 견해는 휴리에트 일간지 영문판에서 볼 수 있다. 그의 기사는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 (The Times of London), 지중해 분기 별 및 외교 정책 잡지에 게재되었다.

출처: more: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9/02/turkey-syria-faces-serious-odds-in-manbij-and-idlib.html#ixzz5fIRqQPdF>

선교 지향적인 목사는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킵니다

글: 마크 엘리스
(갓리포트 2/18/2019)
번역: 한국번역팀



지미 세이버트 목사

1980년 텍사스 주 웨이코에서 작게 시작한 지미 세이버트 목사와 그의 팀은 미국에 35개의 교회와 적어도 80개의 해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채택한 강력한 모델은 슬프게도 너무 많은 것을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를 가능한 한 가깝게 모델링 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화가 나있지 않았다"고 지미 세이버트 목사는 미완성과업 컨퍼런스 소그룹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짐이 있었지만 교회의 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로서 나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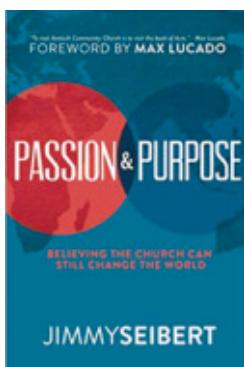
베일러 대학교에서 그는 대학생 선교회에 참여했고 1985년 빌 브라이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2000년에는 전 세계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세이버트는 브라이트가 스스로 그 메시지를 믿었는지 궁금해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머니먼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대학생 선교회의 설립자가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은 오늘날 세이버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배운 가치와 원칙을 웨이코의 침례교회에 도입했습니다. 대학에서 목사로 섬길 때에 그는 오순절 운동을 이끌었던 공동체의 로버트에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놀라운 신앙과 간증으로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초대 교회와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믿음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세이버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철의 장막 안과 밖으로 성경책을 몰래 들여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로버트가 멕시코 시티에서 죽었다 살아난 동역자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었고 로버트는 사흘간 그의 집에서 깨어 기도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언젠가 로버트를 섬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느꼈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나는 대학생 선교회로부터 복음전도와 제자도의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1987년, 세이버트와 그의 아내 로라는 모든 것을 팔아 텍사스 웨이코의 도심으로 이주하여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베일리에서 온 8명의 다른 졸업생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제안했고, 이것은 그들의 선교 훈련 학교의 초기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는 9개월, 해외에서는 3개월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지미 세이버트 목사는 지역 교회가 훈련 과정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방으로 사람들을 파송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역 교회 안에서 관계, 복음전도, 제자와 재생산 영역에서 성장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 교회에 그것을 심어 주면 어떨까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선교 회의에 참석한 직후,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성경구절을 말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각자가 그에게 똑같은 구절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54:2-3입니다.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 임이라

교회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 구절의 중요성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지만, 곧 그것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업을 시작한 때와 동일한 구절임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캐리는 인도에서 그의 획기적이고 영향력 있는 업적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교 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외선교

이에 세이버트와 그의 아내는 웨이코에 있는 본거지로부터 구 소련에서 파트타임 교회 개척을 시작하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타이밍은 적절했습니다. “동유럽에서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YWAM에 소속된 친구를 만났는데, YWAM은 그들이 기독교 록 콘서트로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들은 1991년 눈보라 속에 시베리아 남부에 상륙해 시베리아 북부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을 거쳐 8개 도시 순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YWAM 로커들은 '섹스 금지' 투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남자들이었지만, 군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내리는 날인데도 그날 밤 120여 명이 모였고, 3분의 1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YWAM 방식으로 그들은 '우리는 내일 떠납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이버트와 그의 아내는 매일 밤 3 주 동안 그들과 만났으며, 작은 출발로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시절은 모두 배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없다면 배우지 못합니다. 미전도 종족과 불신자 사이에 개척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웨이코에서 대학 목사로 돌아온 세이버트는 제자도, 전도, 급식,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가르치는 훈련 학교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랄프 네이버가 셀 그룹에 쓴 책은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몽골을 관통하는 비전

1년 후, 그들은 이르쿠츠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소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을 거쳐 동서로 눈이 바라 볼 수 있는 십자가 모양이 계속 보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비전을 교회를 부흥케 하라는 부르심으로 인식했습니다. 몇 달 후, YWAM과 함께 웨이코에 있는 한 지도자가 방문했고 그는 정확히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세이버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8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완전한 '증인'이 되고자 하며 백두 예루살렘 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현지에 나누어 줄만한 것이 주어졌고 국제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상호작용했습니다."

대학 목사로서의 사역을 마친 후, 지역 침례 교회는 세이버트 팀을 축복하고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안디옥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보냈습니다.

도심에서의 개척

"우리는 도심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이코의 도심은 당시 미국의 가난한 지역 중 하나 였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잘 감당해야 열방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범죄율이 높았던 25평방미터의 블록 구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은 항상 사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재현할 수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진정으로 열방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포로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들의 여성 선교사인 헤더 머서와 데이나 커리는 예수영화를 공유한 협의로 탈레반에 체포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예수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14일 동안 실형을 선고 받고 무슬림이 개종하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것은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911이 일어났습니다. 헤더와 데이나는 로리와 나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이에 교회는 104일 동안 계속된 24-7 기도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젊은 여성은 2001년 11월 탈레반 반대 세력이 그들을 석방할 때까지 카불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석방 후 데이나는 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딸들 중 두 명을 감옥에 보내서 온 세상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억압받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세이버트 목사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는 "아프간 북방 연합이 아프가니스탄에 통제권을 확립한 지 두 달 후 그들은 예수영화를 전국 TV에 방영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 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매달 수 천 건의 응답이 있었고, 적

게 잡아도 그 결과 1000개의 가정 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로 모이지 않은 3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들, 이러한 위기들은 중보기도를 가져오고, 이는 돌파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그리고 박해 받는)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데이나(기운데)와 헤더는 석방 후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이버트는 웨이코에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교회에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나는 너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교회라고 불렀다.

"교회란 가는 곳마다, 안팎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세이버트는 생각했습니다. "그 것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탁월해야 합니다. 가정 교회든 건물 교회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교회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까지 세이버트는 텍사스 웨이코에서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다른 훌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이자 도시의 복을 구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가 잡자는 거인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모델에 대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강연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언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어야 합니다."

제자 만들기

안디옥 운동은 제자를 만드는 데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임사역자 500명이 10만 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운동으로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99.5%가 무장되고 권능을 부여 받으며 하루 하루의 선교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밀했습니다."

"어떤 운동이 건강한지는 그 중심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이버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교회 증인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가? 우리 모임은 어떠한가? 그들은 얼마나 건강한가? 매일 사역하는 사람들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가정교회 소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원 자격과정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이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불신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안디옥에서 완전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가정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므로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는 사도행전 2:42-47의 공동체입니다. 친목, 친교, 기도, 말씀으로 가르침, 잃어버린 자에 대한 부흥,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착점이 아니라 부흥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는 헌신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훈련하고 모델링하며 수행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말씀을 얻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깊고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자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입니다.”

또 다른 주요한 가치는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모르는 1-3명의 사람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로라와 지미 세이버트 목사 가족

안디옥 운동에서, 그들은 재정적 겸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며, 너그럽게 베푸십시오. 분수에 맞게 살고 빚을 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당신의 사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십시오. 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도심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가치있게 여김

그들은 또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세이버트는 "그것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정한 게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당신은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간음을 하고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머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금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때 세이버트는 무슬림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선교사 가족과 함께 머물렀는데, 그들은 수위 높은 성인방송인 "edgy" TV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무슬림에게 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들어와서 이 쇼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버트는 "그것으로 머릿속을 채우고 아침에 주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무슬림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그의 거절로 기분이 상했지만, 세이버트는 생활방식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반인으로 살지 말고 군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와 선교, 교회 개척에 진지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을 따르려면 신약성경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라이프스타일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당신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 지역 교회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세이버트는 작은 일의 시작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고프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픈 목사, 배고

픈 지도자, 또는 배고픈 젊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와 같은 소그룹을 시작하고, 그것을 배가시키고 나머지 교회들을 질투하게 만드십시오.”

모델링의 중요성

“더 많은 훈련이 더 많은 복음화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제자화이며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당신이 재현하기를 원하는 가치를 모델링 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맛보고, 만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 가르치는 대신에, 세이버트는 사람들을 새벽 5시에 그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1시간 30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씀과 예배,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것을 함께 합니다. 5일 동안 나는 그들이 이유기를 벗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느꼈고, 맛보고,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버트 목사는 지역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지,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분열되는 교회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교회를 때리거나 두들겨 패지 마십시오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디옥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antioch.org/about-us/>를 참조하십시오.

마크 엘리스

<http://godreports.com>

마크 엘리스는 선교사와 선교 단체의 이야기와 증언을 공유함으로써 기독교 선교를 홍보하는 더 전념하는 웹 사이트인 God Reports의 창립자입니다.

난민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글: 김종훈 사역자 (터키)

호세인 형제 “포화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A도시에서 열린 1월 난민수양회 마지막날에 호세인은 그토록 기대하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은 호텔방에 있는 옥조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세례 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위험했기에 난민이 되어 이란으로 갔다. 그러나 이란에서 나쁜 일에 연루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어 아프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탄 차가 탈레반에 습격을 당하고 모든 승객들이 불들려 그들의 기지로 집혀갔다. 첫 날 그들은 나의 목에 줄을 메어 나무 위에 달았다. 겨우 발꿈치를 들고 있어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이틀을 보냈다. 이후에 구덩이 같은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 매일 구타가 있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동료들이 한명씩 끌려 가서 처형을 당했다. 나는 알라에게 기도했다. 아무런 도움이 없자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나를 포함하여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몇 사람 남지 않았다. 그때 나는 문득 예수님의 생각났다. 왜냐하면 내가 이란에 있을 때 이란 기독교인이 나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완강한 이슬람 신자였기에 강하게 거절하고 그 책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했다. '당신이 만약 살 아계시다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이후에 갑자기 큰 폭격이 발생했다. 그 폭격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던 탈레반 군인들이 대부분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미군이 와서 나를 구조했다.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난 터키에 난민으로 왔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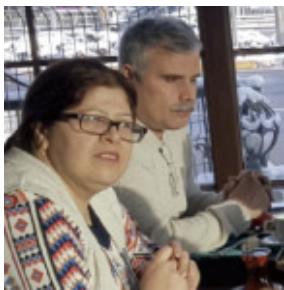
- 이번 난민수양회에서 세례를 받은 호세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 현재 터키에 있는 난민들 교회를 통해 터키 안에 약 450만 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복음이 편민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새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게 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니(마7:7)

호세인 형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에게 전도하여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손녀 사모: 다시 찾은 아버지의 다리

이란에서부터 10년지기 친구이자 동역자인 바흐럼 목사에게 손녀라는 사모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터키의 U 도시에서 3년 전부터 이란교회를 개척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 교회의 개척을 도왔습니다. 손녀 사모의 간증을 나눕니다.



약 50년 전에 나의 할아버지는 골건이라는 이란의 시골에서 살았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밭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주워왔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유일하게 글을 아는 아버지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 종이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편지를 보내면 성경을 보내겠다는 문구도 있었다. 아버지는 편지를 보냈고 얼마 후에 한 권의 신약성경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버지는 그 성경을 읽었으

나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고 믿음이 가지않아서 버렸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에 병이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뼈가 썩어가고 있었다. 근처 병원에 가니 이제 다리의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삼촌이 아버지를 데리고 수도 테헤란으로 절단수술을 위해서 길을 떠났다. 큰 병원에서 내일 날짜로 수술을 약속했다. 내일이면 다리를 잘라야 하는 시간이다. 아버지는 다리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더 이상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보내준 테헤란의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 갔다. 그곳의 사람들이 기록을 찾아서 자신들이 1년 전에 성경을 보낸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분들이 아버지의 수술 이야기를 듣고 혹시 더 큰 의사를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더 필요없다고 했다. 이미 테헤란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 강하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기로 했다. 큰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분들이 의사는 바로 그 책의 이야기에 있던 예수님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뜨겁고 강한 힘이 머리 위로 들어와서 아픈 다리에 머물었고 엄청 아팠다고 했다. 그리고 그 힘은 몸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잠시 후 아픔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분들이 걸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뛰어보라고 해서 뛰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기적같이 치유를 받았다. 더 이상 테헤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가정이 되었다.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손녀 사모의 아버지에게 임한 이적과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소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행3: 8)

손녀의 부모님은 이란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바흐럼 목사와 손녀 사모는 터키에서 몇몇 되지 않는 귀한 이란 사역자 가정입니다.

터키의 삼위일체적 (현지인-선교사-교회) 교회개척운동

글 : 안바울 사역자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 3/7/2019)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6천 8백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한다. 4천만 명은 각 난민 발생국가 내의 난민이고, 그 중 2천 5백만 명은 자국을 떠난 난민들이고, 3백만 명은 망명을 원하는 난민들이다. 특별히 2011년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사태는 2018년 3월 현재까지 약 35만 명의 사망자, 300만 명의 부상자, 1,150만 명의 난민(해외 540만, 국내 610만)을 양산하면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터키 남부의 하타이 - 신약성경의 수리아 앤디옥 지역도 2011년 3월에 시리아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리아 난민 2만 명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다. 2018년 12월 현재 터키에는 3,611,834 명의 등록된 시리아 난민이 살고 있다. 기타 난민은 아프간 172,000명, 이라크 142,000명, 이란 39,000명 소말리아 5,700명, 기타 11,700명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터키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터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난민 상황과 터키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있다. 2017년 1월에 터키 사역자들이 실크웨이브선교회(이하 SWM)와 함께 2007년부터 이어져온 10년의 연합중보기도운동의 실질적인 열매를 보고자 터키 내의 교회 개척을 위한 PIT(Partnership In Turkey)를 시작하게 되었다. 각 배경과 소속과 지역과 성향이 다른 사역자들이 모여서, 2007년부터 10년간의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모인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중보기도 운동으로 인해 서서히 바뀌어진 터키의 영적 기류를 실질적인 교회 개척이라는 열매로 만들어 보자는 파트너십이었다.

이 PIT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교회개척운동(이하 CPM)이다. 그리고 CP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지교회개척자들이다. 현장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닌, 터키인 아랍인 이란인 들로 구성된 교회 개척자들을 중심으로 PIT가 그들을 현장에서 돋고 협력하고 SWM은 그것을 위한 중보기도와 교회들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현지인 교회개척자- PIT-교회가 함께하는 삼위일체적 선교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이 일을 위해 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터키에 있는 터키, 아랍, 이란 현지 교회와 PIT의 추천을 받아 터키 와 아랍 이란인 교회개척자들을 세우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협력하며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교회 개척자들을 1년 2회씩 모여서 훈련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개척운동이 어떻게 결과를 낳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슬람 현장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현지인과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며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슬람권 선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도 이 사역 중 일부를 맡아서 진행하면서 교회개척자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있고 보고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언어권의 현지인 교회개척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
이 순결하라 (마 10: 16)

현장에서 현지인 교회개척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개척자들이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야 한다. 현지 교회개척자들은 교회개척에, PIT는 그들을 현장에서 협력하고 돋는 것에, SWM과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지만, 1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지난 12년간 터키인과 아랍인으로 구성된 현지 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를 담당하면서 파송된 현지 교회개척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 있다. 우리가 현장에서 12명의 교회개척자들을 파송해서 그들 중 정말 1명이라도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면, 이 사역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이 아마도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은 이번 5월에 있을 현지 교회개척자들의 수련회에서 각 지역에서 보고될 하나님의 일들을 듣는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어떠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본인과 이글을 읽는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 협력하여 위대한 삼위일체적 교회개척운동에 동행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 참가자 인터뷰 리베카선교사

사랑하는 연합기도자 여러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터키, 쿠르디스탄 그리고 이집트에서 진행될 2019 킹덤아웃리치 사역에 13팀 150명이 현재 등록하셨습니다.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 쿠르디스탄과 이집트도 현장을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17년 쿠르디스탄 1차 사역에 참가하시고 이번 쿠르디스탄 2차 사역에 참가하시는 리베카 선교사님의 참가동기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짧은 서면 인터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터뷰]

질문: “리베카 선교사님. 지난 2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도 이번에 쿠르디스탄 아웃리치에 참가하시는 마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쿠르디스탄에 가시는 동기와 이 시대를 보시는 선교사님의 이해는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이번에 150명의 참가자들이 터키, 쿠르디스탄 그리고 이집트 아웃리치에 참가하시는데 그분들과 또 그들이 속한 교회와 전세계에서 함께 중보하는 개인과 동역 교회들에게 리베카 선교사님의 참가동기와 부르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최전방에 선 150인과 후방에서 중보하시는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밟고 보는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 이번에 참여하는 150여명의 참가자들의 가족들과 현지에서 저희 팀을 호스트하여 동역할 사역자들의 가정을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대답]

저는 열방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리베카 선교사입니다. 2019 쿠르디스탄 아웃리치 참가동기와 이 시대를 보는 저의 이해가 무엇인가의 질문을 받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에 거주하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남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으로 은혜와 영광 중에 입성하셨습니다.

남편 소천 하신 후 그리움에 눈물이 고일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눈물이 아닌 주님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제부터는 교회로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라고 하셨지요.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며 감옥에 갇힌 자, 귀신들린 자, 병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목자가 되어 섭이며 보내주신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떠난 자리가 아직도 따뜻한데 2개월전 저는 수술을 받았고, 2주전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돌연사의 위험을 맞았으나 믿음의 기도들이 모아져 아들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수술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

되지도 않았고.. 아들이 아직 운전치 않은데.. 여기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상황에 왜 쿠르디스탄에 꼭 가야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만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둘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실크 웨이브 선교회를 통해 쿠르디스탄 예지디인 들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마을..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연결되었고, 저의 마음과 제가 그곳에서 사역한 심대 청년 들과의 마음이 또한 연결되어 우리는 깊이 교감했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사랑하듯, 저도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150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 듣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땅과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소망 중에 믿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그분들을 위로하며 약속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지디 청년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이 가서 함께 울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자 그들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고 마음을 열었지요. 청년들은 제게 그들의 분노와 상처, 꿈, 그들의 마음까지도 나누어 주었답니다. 돌아오는 날 제 품에 안겨 우는 청년들에게 “꼭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볼께”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듯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듯 내가 그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듯, 내가 또한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댓가를 치루며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댓가를 치루며 그분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2년전에 그분들을 방문했을때 저는 모든 부분에 평안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댓가를 치루고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체가 그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봄된 교회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2017년 70인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연합한 모습은 황홀하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군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곧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에게 주님이 비추어주신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시대의 예표적인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은 저의 삶의 목표와 결론이 되었으며 주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의 봄 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요한 17장의 “하나됨”이라고 저는 주께 거듭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드리신 대 제사장적인 기도의 결론인 동시에 주님의 사역 전체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오시었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에 삶을 건, 목숨을 건 동의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간절히 찾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와 연합한 개인 개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함께 일어서는 것을 위해 저는 성령께 사로잡혀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지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실크 웨이브 선교회를 주목하고 기도와 선교로 동참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연합사역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4월 킹덤아웃리치(4/22-5/1)를 위해 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이라”



2017년 70인의 연합. 2년 후인 2019년 150인의 연합. 두배 이상이 인원의 하나됨 안에 두 배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미리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연합된 150인의 사랑의 군대가 어둠의 땅, 이슬람의 거짓의 영, 두려움이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 갈때 어두움의 역사는 끊어지고 빛과 진리가 비추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군대가 밟는 모든 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리고 드려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9 킹덤아웃리치 사역 안내

터키, 이집트 그리고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운동과
난민돕기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참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의 추수밭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정(터키 시간): 2019년 4월 22일(월) – 5월 1일(수)

- 4/21(주일: 부활절) 미국 출발(오후 3시 이후). 한국 출발(4/22 오전)
 - 4/22(월) 이스탄불 도착 및 오리엔테이션
 - 4/23(화) 뷔육아다 섬 사역 (터키 아웃리치팀만 참가)
 - 4/24(수) – 29(월) 킹덤아웃리치 사역(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등)
 - 4/30(화) 비전나눔 및 연합기도회
 - 5/1(수) 귀국(각 자의 사역지로)
- (현지 사정에 따라 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 (마 9:37 – 38)